



즉시 배포용: 2021년 10월 23일

KATHY HOCHUL 주지사

HOCHUL 주지사, 재소자의 약물 사용 질환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법안에 서명

법안(S2209/A540)에 따라, 중독 서비스 지원청은 교정 시설에서의 약물 사용 질환 치료에 대한 지침 업데이트 의무화

Kathy Hochul 주지사는 오늘 중독 서비스 지원청(Office of Addiction Services and Supports, OASAS)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물 및 개인 치료 방법 등에 대한 추가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약물 남용 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법안(S2209/A540)에 서명했습니다. 법안은 주정부 교정 시설에 연간 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합니다.

Hochul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독으로 고통받는 뉴욕 주민들은 회복 과정에서 우리의 도움과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법안으로 인해, 우리는 약물 사용 질환을 겪는 재소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오피오이드 사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에서 중요한 자원이 될 것입니다."

법안은 재소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의 종류, 이러한 약물에 대한 처방, 치료를 받는 사람의 수, 치료를 시작하는 재소자의 단계, 치료를 마친 재소자의 수, 치료 종료 사유, 치료 종료 사유가 약물 사용 또는 독방과 연관있는지 등 특정 데이터를 보고서에 추가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즉시 발효됩니다.

Luis Sepúlveda 상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Kathy Hochul 주지사는 이번 달에 뉴욕주 전역의 약물 관련 사망을 줄이기 위한 오피오이드 법안 패키지에 서명하여, 중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회복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늘 **Hochul** 주지사는 저의 법안인 S2209에 서명하여 중독 서비스 및 지원청이 교정 시설의 약물 사용 질환 치료 지침을 모범관행에 따라 업데이트하도록 하고, 재소자들이 일반적으로 중독되는 약물 종류 및 치료에 대한 데이터를 연간 보고서에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에는 재소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약물 종류가 포함됩니다. 또한 이러한 데이터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주정부가 재소 기간에 더욱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재소자들이 석방되었을 때 약물이나 오피오이드 중독으로 돌아가지 않고 중독 문제를 완벽하게 극복하고 사회의 생산적인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줄 것입니다. 일반 사회 뿐 아니라 교정 시설 내에서 오피오이드 사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함께 법안 통과를 위해 섬없이 노력해주신 **Linda Rosenthal** 하원의원께 감사드립니다. 뉴욕 재소자들을 돕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찬사를 보냅니다."

Linda B. Rosenthal 하원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소자들이 실제로 약물 사용 질환 치료 및 진료를 받도록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안은 OASAS에 종합적인 감독 및 보고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을 의무화할 것입니다. 약물 사용 질환은 뉴욕주 모든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약 **80%**의 사람이 문제를 겪고 있는 감옥보다 중독 문제가 심각한 곳은 없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따라 감옥 재소자들에게 약물 지원 치료가 가능하게 되었고, 뉴욕주는 약물 사용 질환 치료의 현재 수요에 대한 보다 상세한 보고서를 확인하여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도록 필요한 자원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법안에 서명하여 약물 사용 질환에 대한 증거 기반 접근법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주신 **Hochul** 주지사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